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10.19)

1. GM 대두 규제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

1) Wall Street Journal (2009.10.09) 주요 내용

- 무역업자들과 분석가들은, EU가 GM 대두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EU의 농산업을 직면할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
- 전통적으로 EU는 사료용 대두를 대부분 남미로부터 수입해 옴.
 - 하지만, 올해는 아르헨티나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30% 감소하는 등, 남미의 대두 수확량이 극히 적었음.
 - 또한, 중국의 대두 수요가 증가로 공급량을 흡수하다시피 함.
- 이에 따라 EU는 내년도 남미의 대두 수출이 시작되는 3월달 전까지인 향후 6개월간 북미로부터의 대두 수입량을 평년의 두배 가량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 - 전년 수입량 360만톤, 올해 750만톤 예상
- 로테르담 거래소의 미국산 대두 가격은 지난 1월 413달러/톤이던 것이 6월에 425달러/톤까지 상승함.
 -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남미의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1월에 처음 나옴.
- EU가 GMO에 대해 허용한 사항들도 여러 가지 있으나, 수입물량에서 비승인 GMO가 미량이라도 검출될 시에는 전량을 엄격히 반송처리하고 있음.
 - 지난 여름 몇몇 미국산 대두 수입물량에서 비승인 GM 옥수수가 검출되어 독일과 스페인 당국이 반송한 사례가 있음.
 - 이에 따라 EU 당국은 반송 처리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미국산 대두의 수입을 중단하였음.

- 무역회사 Alfred C. Toepfer의 수석경제학자 Klaus Schumacher는,
 - 미국산 대두의 지속적인 수입 정체는 모든 사료작물의 가격을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시켜, 30% 가량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
- 이와 관련하여 향후 6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임.
 - 산업 내 관련자들은 수입 규제가 적절한 시기에 완화되기를 희망함.
 - 미국의 기록적인 대두 생산량에 대한 기대가 낙관적인 영향을 끼치고는 있으나, 무역업자들은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현재의 규제 조치라고 말함.

2) 우리나라에의 시사점

- Non-GM 대두 확보에 대한 국제적 경쟁 심화
 -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GMO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어, 대체관계인 Non-GM 작물에 대한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발생함.
 - 우리나라도 콩류 자급률이 17% 수준에 그치는 등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Non-GM 대두의 국제가격 상승은 국내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- 수입 대두는 식품 뿐만 아니라 사료 등 국내 농식품 부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수입 대두의 안정적인 확보는 향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.
- GMO에 대한 논쟁 심화 예상
 - GMO의 허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논쟁은 국제적, 국내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옴.
 - 국가별, 부문별로 이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.

2. 뉴질랜드, 온실가스 감축과 식량안보 동시 실현을 위한 제안서 발표

1) Wall Street Journal (2009.10.13) 주요 내용

※ 뉴질랜드, 식량안보를 유지하면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제안서("Cutting Carbon, Feeding the World") 주요 내용:

○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지구적 차원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협력과 혁신을 통해서만이 가능함.

- 뉴질랜드는 이에 대한 지식과 행동수단을 가지고 있음.

-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발생의 20%를 차지하는 산림 남벌을 막기 위해 현재 경작지에서의 농업생산성 증대를 이루어 내는 것임.

○ 농업부문 에너지 사용 집중도를 감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일부 국가의 경우 농업부문 집중화가 이보다 더 중요한 목표임.

- 많은 개도국, 특히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자들은 현대화된 생산장비와 비료 등 불충분한 생산요소로 인해 낮은 생산성에 직면하고 있음.

- 낮은 생산성과 빈약한 토질 하에서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산림 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이는 결국 기후 변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.

○ 농업부문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는 '세계적인 식량안보'와 '기후 변화 대응'이라는 두가지 공공재를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함.

2) 우리나라에의 시사점

○ 전세계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, 이를 위한 농업 부문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음.

- 농업 부문 성장을 위한 생산요소의 집중적 투입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가중이라는 부작용이 상존함.

- 따라서 어떻게 하면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방식으로 식량안보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임.
- 특히,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국의 경우 낮은 농업생산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지면적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이것이 산림 개간으로까지 이어짐.
- 이로 인한 산림 면적의 감소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.
- 우리나라에서도 농업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생산, 가공, 유통, 소비를 포함하는 식품체인 전반에서 비재생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.